

전북지역 일부 고등학생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

유미선[†] · 구경미 · 김정숙¹
전남과학대학 치위생과, ¹벽성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in Jeolla-bukdo

Mi-Sun Yu[†], Kyong-Mi Goo and Jeong-Suk Kim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unnam techno College, Gokseong-County 516-911, Korea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yuksung College, Gimje-city 576-711, Korea

Abstract This study executed questionnaire 388 high school boy students in Jeolla-bukdo Namwon from June 9, 2008 to 20th prepares basic data about boy student's oral health behavior, and examines closely the connection factor and plans oral health promotion. Questionnaire distributed getting classroom teacher's cooperation and reclaimed through classroom teacher after make questionnaire by students. The collected data executed Chi-square test and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SPSS program and the result is as following. 1. Response that responded that students of 61.1% are 2 times in toothbrushing number of times on 1 day, and appeared by thing which 69.1% does toothbrushing most much after way in the morning, and cleans up and down by toothbrushing method was the most by 36.6%. A student of only 8.5% was using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2. The oral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ngine use experience rate was 93.6%, and students of 82.9% do treatment as reason by last oral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use purpose and did coming to help. The 1 year within use experience rate was 47.7%, and students of 77.1% were satisfied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3. Toothbrushing frequency of smoked students appeared low compared to students who do not smoke, and students, who do drinking, was expose toothbrushing number by 3 times compared to students who do not. 4. The activity limitation experience rate by oral disease was 16.0%, and the year absence experience rate was 5.2%, and the studies achievement hindrance experience rate appeared by 13.1%. As a result, is considered to strengthen on-time oral medical examination and oral health education, and need prevention and policy of early treatment putting first.

Key words High school student, Oral health behavior

서 론

구강보건행태는 구강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행위의 특성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구강보건행태가 사람에 따라 다르거나 또는 비슷한 것은 사회, 경제, 문화, 심리적 상태 등 여러 환경이 개인의 구강보건행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강보건행태는 개인적 차원이나 집단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유사한 환경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단적인 수준에서 유사한 구강보건행태를 형성하게 된다¹⁾.

청소년기의 한 부분인 고등학생은 구강건강에 대한 관

심도는 높은 반면 정기적인 검진이나 구강병 예방법에 대한 학교구강보건교육은 부족하여 이 시기에 잘 못 형성된 구강보건행태가 성년기와 노년기의 구강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²⁾. 특히 학교 수업시간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통증이 있어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만 치과에 내원하게 되어 구강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³⁾에 의하면 12세 아동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61.1%이고 14세는 73.6%, 16세는 79.5%로 연령증가에 따라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치주상태에서도 치주조직전전자율이 12세는 71.4%, 14세는 65.8%, 16세는 62.7%로 연령증가에 따라 치주병 이환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2003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열악한 상태이다. 이렇듯 구강질환은

[†]Corresponding author
Tel: 061-360-5376
Fax: 061-360-5377
E-mail: misuny3273@hanmail.net

대다수의 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질병으로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치주질환이 급속히 증가되기 시작하고 성인구강건강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소중한 주역이다. 만약 학생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학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면 이는 개인적 손실임은 물론 사회적 손실에 해당된다⁴⁾. 그러므로 구강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구강질환은 조기에 빨리 치료하고 치료후에도 치료된 상태가 잘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구강진료기관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구강보건행태 중 학생의 구강건강 상태가 학업수행에 어느 정도의 지장을 주는지의 학업손실상태 분석과 구강진료기관 이용 실태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구강보건행태를 조사하여 구강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잇솔질에 관한 구강보건행동을 조사한다. 둘째, 구강진료기관 이용률 및 이용목적 등 구강진료기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셋째,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한 및 학업손실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남원 소재의 S고등학교 1~3학년 남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배포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담임교사를 통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이 배포된 조사대상은 400명이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1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38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 자료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기온⁵⁻⁸⁾의 설문내용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내용 4문항, 구강진료기관 이용에 관한 내용 4문항, 흡연과 음주에 관한 내용 2문항,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및 학업손실에 관한 내용 6문항으로 총 16문항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 12.0)를 이용하여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행태, 구강진료기관 이용, 잇솔질 횟수에 따른 흡연과 음주 유무의 차이는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하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tudy subject person

Variable	N	%
Grade		
1 grade	145	37.4
2 grade	141	36.3
3 grade	102	26.3
Total	388	100

고,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및 학업손실은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1학년 37.4%, 2학년 36.3%, 3학년 26.3%이었다(Table 1).

2. 구강보건행태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행태는 Table 2와 같다. 1일 잇솔질 횟수로 3회 이상 잇솔질 하는 학생이 1학년은 33.8%, 2학년은 25.5%, 3학년은 44.1%로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전체학생의 61.1%가 하루 2회 잇솔질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잇솔질 시기는 복수 응답을 실시하였다. 1학년의 경우 아침식후 76.6%, 취침전 55.2%, 저녁식후 49.0% 순이었고, 2학년은 아침식후 70.9%, 취침전 55.3%, 저녁식후 39.7% 순으로 응답한 반면 3학년은 아침식후와 저녁식후가 5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점심식후로 52.9%의 응답을 보였다. 전체학생의 69.1%가 아침식후, 53.9%가 취침전, 47.4%가 저녁식후에 잇솔질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잇솔질 방법에 있어서는 36.6%가 위 아래로 닦는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회전하면서 20.4%, 옆으로 18.8%, 원을 그리듯이 15.7%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유무에 대해 91.5%의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8.5%의 학생만이 사용하고 있었다. 학년별로 1학년은 4.1%이었고, 2학년은 7.8%이었으며, 3학년은 15.7%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사용률이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3. 구강진료기관 이용

구강진료기관 이용에 대해 93.6%의 학생들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마지막 구강진료 이용 목적으로 82.9%의 학생들이 치료를 이유로 내원하였다. 치아교정은 6.9%이었고, 구강검진은 5.5%이었으며, 예방목적이 4.7%로 가장 낮았다.

이용 시기에 있어서 1년 이내 이용 경험은 1학년의 경

Table 2. Oral health behavior

Variables	Grade			Total	p-Value	
	1 grade	2 grade	3 grade			
Toothbrushing frequency						
1 time	6(4.1)	9(6.4)	6(5.9)	21(5.4)	0.040*	
2 times	90(62.1)	96(68.1)	51(50.0)	237(61.1)		
More than 3 times	49(33.8)	36(25.5)	45(44.1)	130(33.5)		
Toothbrushing period ^a						
Before breakfast	36(24.8)	36(25.5)	36(35.3)	108(27.8)	-	
After breakfast	111(76.6)	100(70.9)	57(55.9)	268(69.1)		
After lunch	37(25.5)	26(18.4)	54(52.9)	117(30.2)		
After dinner	71(49.0)	56(39.7)	57(55.9)	184(47.4)		
After noshing	5(3.4)	-	3(2.9)	8(2.1)		
Before sleep	80(55.2)	78(55.3)	51(50.0)	209(53.9)		
Toothbrushing method						
To side	31(21.4)	27(19.1)	15(14.7)	73(18.8)		0.731
Up and down	57(39.3)	46(32.6)	39(38.2)	142(36.6)		
As draw circle	22(15.2)	24(17.0)	15(14.7)	61(15.7)		
Rotate	26(17.9)	29(20.6)	24(23.5)	79(20.4)		
Etc.	9(6.2)	15(10.6)	9(8.7)	33(8.5)		
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Yes	6(4.1)	11(7.8)	16(15.7)	33(8.5)	0.006**	
No	139(95.9)	130(92.2)	86(84.3)	355(91.5)		

^a: As result by revege response, - : Do not produce

*p < 0.05, **p < 0.01

Table 3. Utilization of dental clinic

Variables	Grade			Total	p-Value
	1 grade	2 grade	3 grade		
Experience of utilization					
Yes	138(95.2)	132(93.6)	93(91.2)	363(93.6)	0.452
No	7(4.8)	9(6.4)	9(8.8)	25(6.4)	
Last dental clinic treatment and utilization purpose					
Prevent	7(5.1)	4(3.0)	6(6.5)	17(4.7)	0.257
treatment	110(79.7)	116(87.9)	75(80.6)	301(82.9)	
Orthodontics	9(6.5)	7(5.3)	9(9.7)	25(6.9)	
Oral medical examination	12(8.7)	5(3.8)	3(3.2)	20(5.5)	
Utilization period					
1 year within	62(44.9)	63(47.7)	48(51.6)	173(47.7)	0.047*
1 - 2 years within	20(14.5)	25(18.9)	15(16.1)	60(16.5)	
2 - 3 years within	22(15.9)	9(6.8)	3(3.2)	34(9.4)	
More than 3 years	34(24.6)	35(26.5)	27(29.0)	96(26.4)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atisfaction					
Satisfaction	101(73.2)	98(74.2)	81(87.1)	280(77.1)	0.029*
Dissatisfaction	37(26.8)	34(25.8)	12(12.9)	83(22.9)	

*p < 0.05

우 44.9%이었고, 2학년은 47.7%이었으며, 3학년은 51.6%로 학년증가에 따라 이용 경험이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전체학생의 47.7%가 1년 이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3년 이상으로 26.4%이었다. 진료 만족에 대해 1학년은 73.2%, 2학년은 74.2%, 3학년은 87.1%로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증가

에 따라 만족도가 증가하였다($p < 0.05$). 전체적으로 볼 때 77.1%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22.9%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Table 3).

4. 흡연과 음주 실태

잇솔질 횟수에 따른 흡연과 음주 실태는 Table 4와 같다. 흡연 유무에 있어 흡연을 하는 학생이 13.1%이었고,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은 86.9%이었다. 흡연을 하는 학생의 잇솔질 횟수는 1회 28.6%, 2회는 13.9%, 3회 이상은 9.2%로 흡연을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잇솔질 횟수가 낮게 나타났다($p < 0.05$).

음주 유무에 있어서는 음주를 하는 학생의 잇솔질 횟수가 1회 47.6%, 2회는 42.2%, 3회 이상은 56.2%로 3회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음주를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잇솔질 횟수가 높았고 학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전체적으로 47.2%의 학생들이 음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5.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및 학업손실 실태

구강질환으로 인한 연간 일상생활 활동제한 경험률은 16.0%이었고, 1인당 평균 일상생활 활동제한일수는 0.8일이었다. 연간 결석 경험률은 5.2%이었으며, 1인당 평균 결석일수는 0.09일로 100명당 5명이 구강병으로 인해 결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수행 지장 경험률은 13.1%이었고, 1인당 평균 학업수행 지장일수는 0.59일이었다(Table 5).

Table 4. Smoking and drinking experience Unit: N(%)

Variables	Toothbrushing frequency			Total	p-Value
	1 time	2 time	More than 3 times		
Experience of Smoking					
Yes	6(28.6)	33(13.9)	12(9.2)	51(13.1)	0.044*
No	15(71.4)	204(86.1)	118(90.8)	337(86.9)	
Experience of Drinking					
Yes	10(47.6)	100(42.2)	73(56.2)	183(47.2)	0.037*
No	11(52.4)	137(57.8)	57(43.8)	205(52.8)	

* $p < 0.05$

Table 5. Activity limitation by oral disease and studies damage

Variables	Experience rate (%)	Average number of days ^a
Activity limitation by oral disease	16.0	0.81±2.38
Annual absence	5.2	0.09±0.43
Studies achievement hindrance	13.1	0.59±1.81

^a: Mean±Standard deviation

고찰

학생들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업을 연마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강한 상태이어야 한다. 학생이 구강병으로 인하여 학업손실을 경험한다면 이는 학생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구강건강상태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⁴⁾. 특히 청소년기는 치아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학교 생활이라는 집단적 특성 때문에 구강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호르몬과 관련한 사춘기성 치은염 및 구취현상과 무분별한 흡연을 원인으로 나타나는 치주질환의 진전, 정기적인 치과검진의 어려움 등이 더욱 그러하다⁵⁾. 이에 저자는 구강보건행동과 구강진료기관 이용 경험,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및 학업손실 실태를 파악하여 구강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S고등학교 남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구강보건행동에 관련된 잇솔질 횟수로 61.1%의 학생들이 하루 2회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¹⁰⁾의 연구에서도 59.9%의 학생들이 2회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김⁸⁾등은 3회가 62.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김과 정¹¹⁾의 연구에서도 60%가 넘는 학생들이 3회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김⁸⁾등과 김과 정¹¹⁾의 연구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고, 본 연구결과 이러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잇솔질 횟수의 낮음을 볼 때 구강위생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잇솔질 시기로는 69.1%의 학생들이 아침식후에 잇솔질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이 취침전으로 53.9%이었다. 반면에 점심식후는 30.2%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잇솔질 방법으로 36.6%가 위 아래로 닦는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기존연구^{8,10,12)}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점심식후의 잇솔질 빈도가 낮고, 잇솔질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구강보건교육을 중등학교로 확대시키고, 점심식후의 이닦기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또한 보조구강위생용품을 8.5%의 학생만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도 적극 권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진료기관 이용 경험에 관련된 조사결과 93.6%의 학생들이 구강진료기관을 내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마지막 구강진료 이용 목적으로는 82.9%의 학생들이 치료를 이유로 내원하였다. 유와 안¹³⁾의 연구에서도 84%의 학생들이 치과치료를 경험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고, 또한 예방을 목적으로 4.7%, 치아교정 6.9%, 구강검진이 5.5%로 나타나 정기 검진이 8.3%로 조사된 장¹⁰⁾의 연구와 10.8%로 조사된 김⁸⁾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와 비슷하였다. 구강진료기관 이용 시기에 있어서는 1년 이내 내원한 경우가 1학년 44.9%, 2학년 47.7%, 3학년 51.6%로 조사되어 학년이 증가할수록 내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만족에 있어서도 1학년 73.2%, 2학년 74.2%, 3학년 87.1%로 조사되어 이 또한 학년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구강진료의 이용 목적이 치료를 이유로 내원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감안할 때 3학년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질환이 더욱 진행된 경우에 내원하였을 것이고, 통증경감을 이유로 만족이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시간, 대학입시 문제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구강보건실을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구강진료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과 음주 유무에 대한 연구 성적을 살펴보면 흡연을 하는 학생의 잇솔질 횟수가 1회 28.6%, 2회는 13.9%, 3회 이상은 9.2%로 흡연을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잇솔질 횟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과 정¹¹⁾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흡연은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구강보건교육의 시급함을 말해 주고 있다. 음주에 있어서는 음주를 하는 학생의 잇솔질 횟수가 1회 47.6%, 2회는 42.2%, 3회 이상은 56.2%로 3회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음주를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잇솔질 횟수가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상 음주로 인한 구취 냄새를 제거하기 위함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전체 학생의 흡연과 음주가 13.1%와 47.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각 7.8%, 43.2%로 조사된 이와 김²⁾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등⁸⁾의 연구는 7.2%, 29.8%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강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활동제한은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일상적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학업손실은 질병이나 상해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개 6세에서 16세까지 적용한다¹⁴⁾. 본 연구결과 연간 일상생활 활동제한 경험률은 16.0%이고, 연간 1인당 평균 활동제한일수는 0.8일이었다. 활동제한은 측정방법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학생으로 한 이 등⁷⁾은 활동제한 경험률이 23.1%, 평균 활동제한일수는 1.36일이었고, 이와 이¹⁵⁾는 모친과 아동의 활동제한일수가 각각 4.2일과 3.8일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등¹⁶⁾은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활동제한 경험률이 16.3%였고, 활동제한일수는 1.1일이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교할 때 남자고등학생의 연간 일상생활 활동제한은 다소 적은 편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 구강질환으로 인한 결석 경험률은 5.2%이

었으며 1인당 평균 결석일수는 0.09일로 100명당 5명이 구강병으로 인해 결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결석 경험률이 0.8%, 결석 평균일수가 0.02일로 보고한 윤과 이⁴⁾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이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사료된다. 학업수행 지장 경험에 있어서는 경험률이 13.1%이었고, 1인당 평균 학업수행 지장일수는 0.59일로 학업수행 지장 경험률이 10.1%, 평균 학업수행 지장일수가 0.36일로 나타난 이 등⁷⁾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렇듯 결석과 학업수행 지장 경험률이 높음은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학교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보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획득하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을 수행하는 건강습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한 계속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조사대상자를 전라북도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1곳의 고등학교에 국한되어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료 수집시 담임선생님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 하였던 바 흡연과 음주 유무에 있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확대는 물론 여러 지역에서 표본이 추출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남학생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그 연관요인을 규명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08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남원 소재의 고등학교 남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배포·회수하였고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법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χ^2 (Chi-square)검증과 기술통계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일 잇솔질 횟수로 61.1%의 학생들이 2회라고 응답하였고($p < 0.05$), 69.1%가 아침식후에 가장 많이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잇솔질 방법으로 위 아래로 닦는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다. 보조 구강위생용품은 8.5%의 학생만이 사용하고 있었다($p < 0.01$).
2. 구강진료기관 이용 경험률은 93.6%이었고, 마지막 구강진료 이용목적으로 82.9%의 학생들이 치료를 이유로 내원하였다. 1년 이내 이용 경험률은 47.7%이었고($p < 0.05$), 77.1%의 학생들이 진료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p < 0.05$).
3.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잇솔질 횟수는 흡연을 하지 않

은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p < 0.05$), 음주를 하는 학생들은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잇솔질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p < 0.05$).

4.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률은 16.0%이었고, 연간 결석 경험률은 5.2%이었으며, 학업수행 지장 경험률은 13.1%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예방과 조기 치료 위주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Kim JS, Kim CJ, Mon OR et al: General health lear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ation department, Seoul, pp.57-60, 1994.
2. Lee GR, Kim JY: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oral health care: high school students in Ulsan city.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5(1): 53-62, 2005.
3. The 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06' Oral health research, 2007.
4. Yoon YM, Lee HS: School loss from oral disease and the related factors. *J Korean Acad Dental Health* 26(3): 323-339, 2002.
5. Choe OS, Lee SH: The study of behavior on the awareness of oral health aimed at the residents who lives in Yeoungdong-gun.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6(4): 469-479, 2006.
6. Lee JS: The oral health behavior and its related factor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2004.
7. Lee HS, Yoon YM, Lee JS, Kim SN: Restricted activity with oral disease in a Korean university student. *J Korean Acad Dental Health* 25(3): 245-258, 2001.
8. Kim SH, Ku IY, Heo HY, Park IS: A study on the awareness of oral health education for senior high school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7(2): 105-113, 2007.
9. Kwon HS, Lee SS, Lee MO et al: Dental health pedagogy. Cheonggumunhwasa, Seoul, pp.331-332, 2006.
10. Jang KA: A study on the awareness of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education for a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Busan, Gyeongnam province.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8(1): 107-118, 2008.
11. Kim MY, Jung UJ: Investigation of oral health according to obesity and smoking in high-school in Busan.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7(3): 273-284, 2007.
12. Chang YS, Kim HS: Study on the oral health awareness, attitudes and behaviors for students at Chung-nam province. *J Kor Ind Dent Health* 12(2): 149-160, 2003.
13. Yoo SM, Ahn GS: A study on dental health awareness of high school students. *J Dent Hygiene Science* 3(1): 23-31, 2003.
14. Reisine ST: Dental health and public policy: the social impact of dental disease. *Am J Public Health* 75(1): 27-30, 1985.
15. Lee YW, Lee HS: The days of activity restriction in mother and children from oral illness. *J Korean Acad Dental Health* 23(3): 255-265, 1999.
16. Lee HS, Yoon YM, Oh HW: Restricted activity due to oral disease among girl students in Gwangju. *J Korean Acad Dental Health* 31(2): 214-223, 2007.

(Received March 24, 2009; Revised June 18, 2009;
Accepted June 20, 2009)

